

이의리, 50닝 7K 무실점... KIA '특급 신인' 등장



광주일고 졸업한 고졸 루키

72개 던져 스트라이크 비율 60%

직구·커브·체인지업 위력적

타선 침묵에 롯데에 1-3 패배

'루키' 이의리가 선배들을 긴장시키는 호투를 선보였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시범경기 5차전을 가졌다. 경기는 1-3 패배로 끝났지만 KBO리그에 첫 선을 보인 이의리가 위력투로 팬들을 웃게 했다.

이의리는 1회 볼넷 2개를 내주는 등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5회 마지막 이닝을 'KKK'로 장식하면서 특급 신인의 등장을 알렸다.

이의리가 1회초 선두타자 나승엽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다. 이후 손아섭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뒤 정훈을 6구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투아웃을 채웠다.

하지만 이의리가 이대호에게 우측 2루타를 맞은 뒤 안치홍에게 역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면서 2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실점 위기에서 한동화와 마주한 이의리는 3구째 3루수 앞 땅볼을 유도하면서 실점 없이 1회를 넘겼다.

2회는 시작과 함께 유격수 박찬호의 수비 도움을 받았다. 선두타자 신용수의 타구가 2루 베이스 옆을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시프트상 3루 쪽으로 치우쳐 있던 박찬호가 빠르

게 2루 베이스 쪽으로 이동해 땅볼을 만들어줬다. 이어 지시완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투아웃.

이의리는 2사에서 마차도에게 좌측 2루타는 내줬지만 나승엽의 우익수 플라이로 2회도 실점 없이 끝냈다. 3·4회는 탈삼진 하나씩 곁들여 삼자범퇴. 5회는 탈삼진 페레이드가 펼쳐졌다.

지시완과 마차도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이의리는 나승엽을 선 채로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리하며 등판을 마무리했다.

직구 힘으로 상대를 압박지른 이의리는 위력적인 체인지업과 함께 허를 찌르는 커브까지 구사하면서 시범경기 첫 성적표에 5이닝 2피안타 2볼넷 7탈삼진 무실점을 적어넣었다. 앞서 이의리는 지난 19일 LG와의 퓨처스리그 연습경기에서는 3이닝 1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었다.

이날 72개의 공을 던진 이의리는 이 중 42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다.

40개의 직구를 던졌고, 최고 구속은 148km 평속은 144km를 찍었다. 또 커브는 13개, 슬라이더는 3개, 체인지업은 16개를 구사했다. 슬라이더 최고 구속은 138km, 체인지업은 135km.

이의리는 "1회초 영점이 잡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자세를 낮게 가져가려고 신경 썼다. 포수 김민식 선배도 '직구가 좋으니, 가운뎃만 보고 던지라'고 조언해줬고, 이후 제구를 잡았다"며 "오늘 경기를 자평하자면 체인지업이 좋았다. 체인지업이 효과적이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다만 커브는 '뒤에서 나오는 느낌'이라, 릴리스 포인트를 더 앞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마운드에서 내려온 뒤 감쪽남께서 '스트라이크 존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스스로도 스트라이크를 더 많이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등판에선 스트라이크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마운드 기상도, 내일은 맑으니"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시범경기에서 KIA 신인 이의리가 선발로 등판, 1회에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무리 후보, 김재열도 있다

KIA 윌리엄스 감독 "구위, 가능성 충분...와일드 카드로 주시"

마무리 싸움에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었다. KIA 타이거즈의 윌리엄스 감독은 시범경기를 통해 선발은 물론 마무리를 찾고 있다.

박준표, 정해영을 마무리 후보로 점찍어 놓은 윌리엄스 감독은 김재열에게도 눈길을 보내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25일 마무리에 대한 질문에 "박준표는 가장 경험이 많다.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해영은 한 번이지만 해본 경험이 있다. 마무리 경험은 적지만 경기 후반부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와일드 카드로 김재열을 보고 있다. 구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9회라는 이닝은 다른 이닝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마무리에 관한 답변을 한다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 매치업 등에 따라서 보고 점검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역동적인 투구 그리고 뛰어난 구위로 새로운 마무리 후보로 떠오른 김재열은 반전의 캠프를 보내고 있다.

첫 라이브 피칭이 끝난 뒤 윌리엄스 감독은 김재열의 제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직구 커맨드가 훨씬 좋아졌다"

며 "직구 커맨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이 되어야 다른 부분도 잡히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맹텐의 예를 들며 직구 커맨드를 강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맹텐의 지난 등판 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번째 이닝에서는 직구 커맨드가 안 잡혀서 다른 변화구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었다. 2회에는 직구 제구가 잡히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다"며 "똑같은 속제 김재열에게 적용된다.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다면 다른 구종도 좋아지는 선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재열은 이날 롯데와의 시범경기에서 '마무리 테스트'를 받았다.

1-1로 맞선 9회초 '마무리 후보' 박준표가 먼저 마운드에 올랐다. 박준표가 첫 타자 김준태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추재현에게 우중간 2루타를 맞았다. 패스트볼로 1사 3루. 배성근의 유격수 땅볼 때 김규성이 홈 승부를 선택했지만, 송구가 빛나가면서 야수 선택이 기록됐고 1-2가됐다.

박준표가 최민재에게 다시 2루타를 맞자 김재열로 투수 교체가 이뤄졌다. 김재열은 3구째 김민수를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하고 정보근과의 초구 승부에서 유격수 플라이로 이닝을 정리하며, 어필 무대를 가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아쉬운 2회

텍사스 시범경기 첫 선발...2회 집중타 허용 3.1이닝 2실점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첫 선발 등판에서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양현종은 25일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1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내주고 2실점했다. 볼넷 없이 삼진 2개를 속아냈다.

개막전 엔트리 진입을 노리는 양현종에게는 아쉬운 결과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경기 전 "양현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양현종은 중요한 테스트에서 앞선 등판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양현종은 1회말 디 스트레인지-고든을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하며 경쾌하게 출발했다. 이어 니콜라스 카스타야노스에게 중전 안타를 내줬으나 마이크 무스타카스를 3루수 땅볼로 유도해 주자를 2루



에서 잡아냈다.

양현종은 4번 타자 에우헤니오 수아레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고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텍사스는 2회초 2루타 2개와 볼넷 2개로 3점을 뿜어내고 신시내티 선발을 끌어내렸다. 팀 공격이 길게 진행되면서 어가가 식은 탓인지 양현종은 2회말 집중타를 허용했다. 시범경기 구원 투수로만 3경기에 등판했던 양현종은 마침내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에서 흔들렸다. 개막전 엔트리 진입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장신 발로텔리 영입 화력 강화

전남드래곤즈가 장신 공격수 조나탄 발로텔리(Boareto Dos Reis Jonathan·32)를 영입해 화력을 강화했다.

185cm, 77kg의 다부진 체격의 발로텔리는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술을 앞세운 1대 1 돌파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에도 강한 스트라이커다. 프로 통산 90경기에서 나와 28득점 11도움을 기록했으며, K리그 경험도 있다.

2018시즌을 앞두고 부산아이파크로 이적한 그는 시즌 직전 부상 탓에 4월 늦게 그라운드에 나섰고, 4경기 2득점의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기 중 당한 부상으로 계약해지되면서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다.

그해 여름에 페르시안 걸프리그(이란 1부)의 사나 나프트로 팀을 옮긴 발로텔리는 이후 갑급리그(중국 2부) 쓰촨 룽파와 사이프러스 1부의 EN 파랄림니에서 활약했다.

발로텔리는 "K리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 부산에서의 경험 덕분에 적응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 목표는 항상 팀을 위해 최대한 많은 득점과 도움을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싶다. 이곳에 오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은 아시아 쿼터인 올렉을 제외한 3명의 외국인 쿼터(사무엘, 알렉스, 발로텔리)를 모두 공격자원으로 채우며 승격을 위한 갈을 땀아들었다.

화력을 보강한 전남은 오는 4월 4일 오후 1시 30분 안방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한다. 전남은 앞선 4경기에서 1승 3무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 '팬과 함께 혁신을'

구단 운영 아이디어 공모

프로축구 광주FC가 팬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나선다.

광주가 25일 "2021시즌 혁신과 도약을 위해 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적극적인 구단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제안은 시민구단으로서 팬들과 함께 광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팬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를 사랑하는 팬은 누구나 구단 공식 홈페이지(gwangjufc.com) '아이디어 제안'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광주는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검토해 구단 운영에 접목할 예정이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 자유게시판은 '한 줄 응원하기'로 변경해 응원 메시지 전달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신 자유게시판에서 이뤄졌던 Q&A는 1대 1 문의하기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